

##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열왕기하 7:3-10

교향곡은 4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은 2악장으로 되어 있어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 인생도 4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성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문 어귀에 나병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인생의 축소판 같이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4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미완성으로 끝나지 않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1악장: 절망

이들의 첫 악장은 절망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왕하 7:3-4a) 이들은 나병환자로서 사마리아성문 어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성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당하여 굶주림이 극심해졌습니다. 얼마나 굶주렸는지 아이들까지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성안의 사정이 이러니 성문 밖 나병환자들의 사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의 사정도 절망이요, 주변 환경도 절망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단어들을 보십시오. “성문 어귀, 나병, 죽기를, 굶주림,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머무르면 역시 죽을 것이라.” 온통 절망과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1악장도 이 같은 절망입니다.

### 2악장: 구원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 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왕하 7:4b) 이들이 기왕 죽을 바에야 음식이 있는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는 말을 합니다. 아람 군대가 살려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군대가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곳에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헛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왕하 7:6-7) 주께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어주셨습니다. 나병환자들의 1악장은 절망이었는데 2악장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구원의 2악장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 3악장: 축복

나병환자들의 이야기는 절망에서 벗어나 살게 된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 3악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나병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왕하 7:8) 나병환자들은 목숨만 산 것이 아니라 상상도 못했던 은, 금, 의복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이 아니라 풍성한 축복도 주시려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b)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성경은 축복의 내용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요 (민 6:23-26), 다른 하나는 물질적인 축복(신 28:2-6) 입니다. 나병환자들은 이제 3악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은, 금, 의복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구원의 2악장을 넘어 축복의 3악장에 이르러야 합니다.

#### 4악장: 사명

절망에서 구원으로, 구원에서 부요한 축복을 받은 나병환자들은 그 3악장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구원과 축복 가운데 있던 나병환자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겐 분명한 사명선언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왕하 7:9b) 이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깨닫고 그 길을 가서 외쳤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미완성 인생이 됩니다. 사명은 빛을 갠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롬 1:14-15) 절망에서 구원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사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았다면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난 9월 1일 중앙일보 목요일자 신문에 연세대 송복 명예교수의 책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특혜와 책임”이었습니다. 그는 특혜만 받고 책임을 안지는 사람들을 “천민상층”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혜를 받아 상층에는 있지만 책임을 안지니 천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축복이라는 특별한 특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한총을 받았을 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천민 같은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4악장 사명까지 완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사명완수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도바울도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달려 갈 길을 다 달렸다!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사명완수 선언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사명을 선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명완수의 선언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는 10월 23일 Coming Home(집으로) 행복에의 초대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이 뉴욕 도성에도, 절망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해 침묵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2악장, 축복의 3악장 까지 누린 사람들이 사명의 4악장에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 미완성 교향곡을 남기고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교향곡 4악장까지를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께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 ○ 나눔의 시간 ○

나눔1. 인생의 4악장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나눔2. 나의 구원은 확실합니까?

나눔3. 나의 사명 선언서는 무엇입니까?

나눔4. “행복에의 초대”에 나오라고 누구에게 가서 전하시겠습니까?